

아키그램 건축에 나타난 아키그램 리틀 매거진의 영향과 특징*

Influence of Archigram as a Little Magazine on Archigram's Architectural works and its Characteristics

Author 임진우 Lim, Jin-Woo / 정희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조교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rchigram's architectural works by analysing Archigram, which was a little magazine issued from 1961 to 1974. Studies on the Archigram's architectural works have been mostly focused on their projects themselves, not within the context of the medium, Archigram (little magazine). However, Archigram as a little magazine worked as a platforms where ideas and projects could be developed and communicated among the member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distinct features of Archigram's architectural works which were influenced by its little magazine, Archigram. The major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Archigram's architectural works worked as media themselves; Archigram's architectural works are open-end conclusions which can be transformed and developed by other members; Archigram members created new temporality, creating 'up-to-the-minute' architecture.

Keywords 아키그램, 리틀 매거진, 잡지, 매체
Archigram, Little Magazine, Magazine, Media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Little Magazine(이하 “리틀 매거진”)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미국과 유럽의 문학·예술·사회과학 분야에서 나타난 잡지 유형이다. 이는 일반 출판사에서 무명작가 혹은 학생의 작업이거나 논쟁의 여지가 많거나 광고주 혹은 대중의 구미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게재하기를 거절한 작품들을 출판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소규모 그룹의 작가들이 직접 잡지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잡지들은 광고주와 대중들의 기호와 상관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공유하는 장이 되었고 많은 현대 작가와 평론가들은 이런 유형의 잡지를 통하여 성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규모 인쇄기술이 발전하면서 1960, 70년대에 건축분야에서도 많은 리틀 매거진이 나타났다. 1961년에서 1974년 사이에 영국에서 발간된 아키그램은 이들 리틀 매거진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피터 쿡, 데이비드 그린, 마이클 웹을 포함한 6명의 젊은 건축가들이 모여 만든 잡지이다¹⁾. 이들의 작업은 잡지라는 매체

를 통하여 국제적 조명을 받기 시작하여 동명의 건축설계회사로 활동하였고, 이들이 활동하던 당시 건축 교육자 및 학생, 그리고 건축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키그램 활동이 중단된 이후에도 아키그램의 구성원들은 건축가, 건축저널의 편집장,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건축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키그램은 13년 동안 10권²⁾이 발행되어 다른 리틀 매거진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 관련 리틀 매거진은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되었으며, 이는 건축 관련 리틀 매거진이 대중들이나 학계에서 서서히 잊히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많은 아키그램 그룹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그들의 개별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되었을 뿐 아키그램이라는 독특한 건축 잡지의 틀 안에서 연구된 사례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이들의 건축 작업은 동명의 건축 잡지 작업과 긴밀히 연계되어있으며 당시 리틀 매거진에 대한

1) 아키그램은 피터 쿡(Peter Cook), 론 헤론(Ron Herron), 워렌 초크(Warren Chalk), 데이비드 그린(David Greene), 마이클 웹(Michael Webb), 데니스 크롬튼(Dennis Crompton)의 여섯 건축가가 영국에서 발간한 리틀 매거진이다. 이들은 동명의 건축설계회사로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잡지는 아키그램으로, 설계회사는 아키그램 그룹으로 부르기로 한다.
2) 아키그램은 1961년 첫 호를 발행하여 1970년에 9번째 호를 발행하였고, 1974년 9호를 마지막으로 발행하였다.

* 본 연구는 2013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이해 없이 이들의 작업을 논하기는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아키텍그램과 당시 리틀 매거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점이 그들의 작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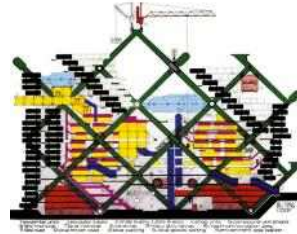
1.2. 선행연구

1960년대 많은 건축 리틀 매거진이 등장했을 당시의 연구로는 「Zoom wave hits architecture」(Banham, Reyner, 1966), 「Little magazines in architecture and urbanism」(Scott Brown, Denise, 1968)이 있다. 이들 연구는 당시 대표적 건축 리틀 매거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술과 팝 문화에 영향 받은 젊은 건축가들의 작업을 분석하였다. 건축 리틀 매거진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Clip, Stamp, Fold: The Radical Architecture of Little Magazines 196X - 197X」(Colomina, Beatriz 외, 2010)의 연구를 통하여 활성화되었다. 이는 비트리즈 콜로미나와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의 60-70년대 건축 리틀 매거진들의 방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2007년 뉴욕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개최된 “Clip/Stamp/Fold” 전시의 내용과 이와 관련한 좌담회, 인터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8년 미미 자이거(Mimi Zeiger)가 기획한 “A Few Zines, Dispatches from the Edge of Architectural Production” 전시와 이와 관련한 연구는 90년대 출판된 건축 리틀 매거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리틀 매거진과 관련한 이와 같은 최근의 연구는 대부분 방대한 범위의 대규모 전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리틀 매거진과 이를 바탕으로 활동하였던 건축가들의 작업을 자세히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2. 건축 리틀 매거진의 특징과 역사

리틀 매거진은 2차 대전을 전후로 19세기 말 - 1940년대와 1950년 - 70년대 사이에 크게 두 시기에 걸쳐 나타난다. 첫 번째 세대에서는 문학, 예술 분야에서 주로 일어났고, 건축분야의 리틀 매거진은 두 번째 세대에 활성화되었다. 19세기 말 리틀 매거진이 처음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형 출판사의 편집의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실험적인 작업을 예술가와 작가들 사이에서 교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같은 대형 출판업계와 리틀 매거진 사이의 단순한 대립적인 구도는 두 번째 세대에서 복잡화 된 모습을 보인다. 주류 건축 잡지는 리틀 매거진을 통하여 활동하는 건축가의 작업을 게재하기도 하였고, 리틀 매거진의 편집방식과 내용을 그들의 잡지 편집에 차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건축 리틀 매거진과 관련된 학생, 젊은 건축가들은 적극적으로 기성 건축가, 학자들과 교류를 하고 영향을 받았다. 아키텍그램 그룹의 경우, 이들은 작업과 생각은 버킨스터 풀러(Buckminster

Fuller), 요나 프리드먼(Yona Friedman), 세드릭 프라이스(Cedric Price), 그리고 레이너 밴햄(Reyner Banham) 등과 같은 기성 건축가, 이론가들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³⁾



<그림 1> Achigram, Plug-In City, 1964



<그림 2> Buckminster Fuller, Geodesic Dome, 1948

2.1. 19세기말 - 1940년대 잡지와 건축 리틀 매거진

종이 가격의 인하와 인쇄술의 발전으로 19세기 말 잡지, 신문과 같은 출판물의 대량 판매 시장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1870년대와 1890년대 사이의 경기 침체로 구독자가 줄어들고 출판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판사들은 잡지에 광고를 도입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출판물의 가격을 낮추는 대량 출판물의 새로운 수익구조를 도입하게 된다. 잡지의 생태계가 구독자 중심에서 점차 광고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잡지의 단가가 내려가고 이의 대중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광고 산업은 대량 출판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19세기 말의 잡지 혁명(magazine revolution)⁴⁾은 소비와 광고의 연결 고리가 형성되는 새로운 사회·문화 현상 속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공공적 의사소통의 영역인 신문이나 잡지에서 과도한 상업주의 광고를 규제하고, 광고의 진실성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생겨났다.⁵⁾ 대중 매체의 공공성 위기의식과 광고주, 편집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려는 창작욕구는 당시의 작가와 예술가들이 리틀 매거진 형식의 매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2차 대전 이전의 20세기 초 문학계는 리틀 르네상스(little renaissance)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리틀 매거진이 출판되었고 예술, 문학계에 미친 영향도 매우 컸다.⁶⁾ 많은 예술가들은 주류 잡지의 상업성을 비판하고 자유롭

3) 아키텍그램은 지오데식 돔, Dymaxion 주택 등을 설계한 버킨스터 풀러의 건축 철학, 디자인에 영향을 받았다. (그림 1, 2 참조)

4) Ohmann, Richard Malin. Selling culture: Magazines, markets, and class at the turn of the century. Verso, 1996, p.340

5) 이와 관련하여 당시 활동하였던 단체로는 Society for the checking of Abuses in Public Advertising(SCAPA), Associated Advertising Clubs of the World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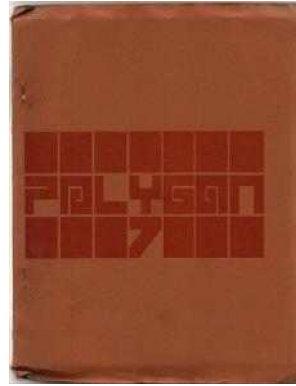
6) 대표적인 예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내용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게재를 거부당하였고 당시의 대표적인 리틀 매거진이었던 The Little Review(1914-1929)를 통해서 1918년에 게재되었고, 이를 통하여 조이스는 그의 작품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고 실험적인 작업을 동인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리틀 매거진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대중 매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새로운 제품, 기술, 광고 그리고 상업 및 소비문화 현상은 작가와 예술가들의 새로운 예술적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상업적으로 몰들려 하지 않는 경계심과 대중 매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회 현상에 대한 예술적 관심, 그리고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작업을 대중들에게 알리고자하는 예술가와 작가의 복합적 욕구는 이들의 작업뿐 아니라 작품이 게재되는 잡지, 리틀 매거진의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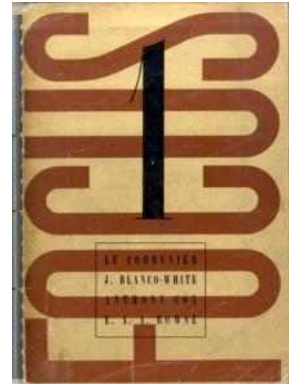
20세기 초에 등장한 대표적 건축 관련 리틀 매거진은 De Stijl(1917-1932), L'Esprit Nouveau (1920-1925), 그리고 G(1923-1926) 등이 있다. 이들 건축 리틀 매거진에서도 당시 건축가들의 기술, 상품, 광고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르 코르뷔지에는 에스프리 누보 작업을 하면서 광고주의 제품 카탈로그, 산업 기계, 상품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이 같은 르 코르뷔지에의 광고, 상품, 그리고 기술 문화에 대한 관심은 이후 그의 건축 작업과 저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그의 건축 작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예술표현의 자유와 상업주의에 대한 경계 성격이 강한 문학 분야와 달리 건축 리틀 매거진은 자기 선언적이거나 선전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문학 분야의 리틀 매거진과 같이 주류에 저항하고 비판적 성격을 가진 건축 분야의 리틀 매거진은 2차 대전 이후 50년대에 이르러서 나타난다.⁸⁾

2.2. 1950년대 - 70년대의 건축 리틀 매거진

2차 대전 이후 70년대까지 미국과 유럽에서는 30개가 넘는 건축 관련 리틀 매거진이 등장할 만큼 학생과 젊은 건축가들의 리틀 매거진 활동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2차 대전 이후 50년대에는 주류의 건축 잡지들이 등장한 시기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건축 관련 리틀 매거진이 발간되기 시작한 시기였다.⁹⁾ 초기의 아키텍처 또한 대부분 학생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잡지의 형식이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잡지가 대거 등장한 이유는 당시 주류 건축 잡지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게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형화된 인쇄기술을 통하여 다양한 자료(도면, 그림, 글씨, 사진, 타자기 텍스트, 잡지 스크랩 등)들을 손쉽게 다양한 방식으로 편집이 가능하



<그림 3> Polygon, 1956-63, Regent Street Polytechnic



<그림 4> Focus, 1938-39, Architectural Association

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담은 소규모의 잡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건축 리틀 매거진은 기존의 전통적 저널의 형태에 도전하여 콜라주, 오려 붙이기, 접기 등의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편집하였고, 이러한 잡지의 편집 방식은 건축 작업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2차 대전 이후 1950-70년대의 기술은 학생들이 직접 다루었던 인쇄기술과 마찬가지로 일상화, 대중화를 통하여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던 시대였다. 레이너 뱅햄은 이 같이 당시의 팝문화와 함께 대중화된 기술의 이미지를 “차고 놀기 위한 과학(science for kicks)”¹⁰⁾으로 표현하였다. 뱅햄이 리틀 매거진에 주목한 이유는 모더니즘에서 기술에 대한 엄숙한 해석과는 달리 당시의 기술을 대중적이고 소비가능하며 즐거운 개념으로 해석한 점이였다. 뱅햄은 「Zoom wave hits architecture」에서 4개의 리틀 매거진(Polygon, Cip-Kit, Megascope, Archigram)을 소개하면서 이들 리틀 매거진이 다소 엉뚱하고 과감한 건축을 선보이고 있지만, 당시의 발달된 대중 매체(칼라 잡지)로 고양된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리틀 매거진이 가지는 의의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뱅햄은 리틀 매거진이 주류의 건축 잡지보다 현재 생성되는 관습을 즉각적으로 건축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중들과 보다 잘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¹⁾

2.3. 기존 학계, 잡지가 리틀 매거진에 받은 영향

2차 대전 이후 70년대까지 등장한 대표적인 건축 리틀 매거진이었던 Le Vide Sanitaire, Megascope, Arquitectura Autogobierno, Archigram 등은 미국, 유럽의 여러 건축 학교에 전달되어 학교-스튜디오-잡지, 혹은 학생-교사-건축가들 사이에서 공론장을 형성하였다.¹²⁾ 급격하게 변

7) Allen Upward(1863-1926), Wyndham Lewis(1882-1957)와 같은 시인은 광고에서 사용하는 문체, 타이포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실험적인 문학 작품 활동을 하였다.

8) Patteuw, Véronique, Architecture, Writing And Criticism In The 1960S And 1970S: The little magazine as agent provocateur, Architectural Theory Review Volume 15, Issue 3, 2010, p.284

9) 당시 발간된 학생들의 리틀 매거진으로는 Polygon(1956-63, Regent Street Polytechnic), Focus(1938-39, Architectural Association), Bartlett's Outlet(1959-62, Bartlett), Plan(1943-51,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 발간함), (그림 3, 4 참조)

10) Whiteley, Nigel. Reyner Banham: historian of the immediate future. MIT Press, 2002, p.164

11) Banham, Reyner, Zoom wave hits architecture, New Society Volume 7, Issue 179, 1966,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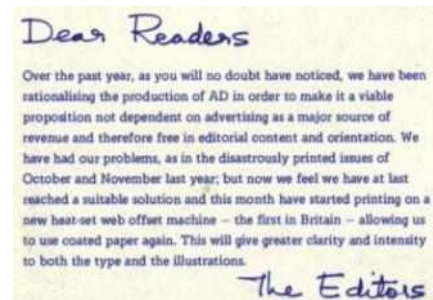
하는 당시의 사회, 기술 속에서 여전히 고전적인 건축 교육에 머물러 있었던 교육 현장에서 리틀 매거진은 건축 교육변화에 촉매 역할을 하였다.¹³⁾ 또한, 리틀 매거진과 관련된 많은 건축가들이 대학교에서 건축을 가르쳤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시 학계와 리틀 매거진의 젊은 건축가들의 관계가 대립적이기 보다는 우호적 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건축 리틀 매거진은 기존의 주류 건축 잡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사례로 1930년 발간된 Architectural Design(이하 “AD”)의 60-70년대의 변화를 예로 들 수 있다. AD는 영국의 대표적인 건축 전문 잡지로 경기 침체로 구독자 수가 줄어드는 시기에 대중과 소통하기 위하여 Cosmodora(1967-74)¹⁴⁾라는 섹션을 통하여 리틀 매거진의 편집 방식인 오려 붙이기(copy and paste)를 도입하였다. 이는 건축 리틀 매거진의 특징적인 편집 방식으로 주류 건축 잡지의 편집방식과 큰 차이를 보였던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건축적인 편집 방식이었다. Cosmodora는 기술과 상품을 통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으로 다른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편집되었다. 이는 리틀 매거진인 Clip-Kit의 편집장이었던 Petter Murray가 AD에서 아트 편집자로 근무하게 되면서 Cosmodora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러한 과감한 시도는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AD의 주요 섹션으로 자리 잡았으며, AD가 여러 형태의 건설 자재 카탈로그를¹⁵⁾ 출판하는 모회사(The Standard Catalogue Co. Ltd.)의 다른 출판물들과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이 새로운 편집 방식과 내용은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오히려 광고 수익이 줄어들어 AD는 광고료로 수익을 내는 방식이 아닌 잡지를 팔아 수익을 내는 과거의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971년 9월호의 편집자의 글¹⁶⁾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독자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게재되어있으며, AD는 이를 통하여 보다 자유롭게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잡지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5> AD의 Cosmodora 섹션, 1971년 9월호



<그림 6> AD의 1971년 9월호 편집자의 글

3. 아키그램의 배경과 특징

3.1. 아키그램 그룹 구성과 작업 환경

1961년 아키그램 1호를 작업할 당시 아키그램의 구성원은 피터 쿡(25세), 데이비드 그린(24세), 마이클 웹(24세)으로 이들은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하지만 다음 해 발간된 아키그램 2호 부터는 워렌 초크(34세), 테니스 크롬튼(26세), 론 헤론(31세)의 3명의 LCC(London County Council)소속 건축가였던 구성원이 추가로 참여하게 된다. 같은 시기에 이들은 테오 크로스비(Theo Crosby)의 도움으로 리빙 시티(Living City)¹⁷⁾ 전시를 개최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들 모두 크로스비의 Taylor Woodrow Design Group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후 이들은 아키그램 작업의 근거지를 각자의 아파트에서 Taylor Woodrow Design Group으로 옮기게 된다. 아키그램의 구성원들은 1964년까지 크로스비의 Taylor Woodrow Design Group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시간 이후에 아키그램 작업을 하여, 그들의 작업이 널리 알려지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64년 아키그램은 그들의 근거지였던 Taylor Woodrow Design Group이 해체되면서 각각의 구성원들

12) Mark S. Morrisson, Public Face Of Modernism: Little Magazines, Audiences, And Reception, 1905-1920,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0, p.11

13) Colomina, Beatriz, Buckley, Craig, Clip, Stamp, Fold: The Radical Architecture of Little Magazines 196X - 197X, ACTAR Publishers, 2010, pp.12-13

14) 그림 5 참조

15) The Standard Catalogue Co. Ltd.에서 출판하는 건설 자재 카탈로그에는 Architects' Standard Catalogues, the Builders' Standard Catalogue, the Builders' Merchants' Standard Catalogue, the Municipal & Public Works Catalogue, the Ironmongers' Standard Catalogue, and the British Export Catalogues 등이 있다.

16) 그림 6 참조

17) 현대예술협회(ICA,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에서 개최한 아키그램의 첫 번째 전시회인 리빙 시티(Living City)는 3번째 아키그램의 주제를 제시한다.

<표 1> 아키그램 각 호의 내용과 형식

호수	1호 (연도:1961, 가격:6펜스)	2호 (연도:1962, 가격:1실링6펜스)	3호 (연도:1963, 가격:1실링)	4호 (연도:1964, 가격:2실링)	5호 (연도:1965, 가격:2실링)
표지 이미지					
형식	크기(mm): 395x330 인쇄: 복사+감자 도장 제본: 스테이플 (2페이지)	크기(mm): 340x215 인쇄: 옅색 리소그래픽 제본: 스테이플 (7페이지)	크기(mm): 200x330 인쇄: 옅색 리소그래픽 제본: 스테이플 (7페이지)	크기(mm): 170x220 인쇄: 옅색 리소그래픽+실크스 크린(표지) 제본: 스테이플 (17페이지)	크기(mm): 215x150 인쇄: 옅색 리소그래픽 제본: 스테이플 (22페이지)
내용	학생작품 및 젊은 건축가 작품 소개, 피터 쿡, 데이비드 그린, 마이클 웹 참여.	아키그램 구성원의 작업 소개. 워렌 초크, 데니스 크롭튼, 론 헤론이 아키그램 작업에 합류.	쓰고 버리는 건축(Expendable Architecture)이라는 주제로 열린 리빙시티 전시를 바탕으로 잡지 구성.	미래의 건축 환경에 관한 워렌 초크의 글을 SF만화의 구성.	플러그인시티, 컴퓨터시티, 워킹 시티 등 거대구조물을 통하여 도시 문제 연구.
호수	6호 (연도:1965, 가격:3실링)	7호 (연도:1966, 가격:정보없음)	8호 (연도:1968, 가격:5실링)	9호 (연도:1970, 가격:정보없음)	9호 (연도:1974, 가격:정보없음)
표지 이미지					
형식	크기(mm): 305x305 인쇄: 옅색 리소그래픽+실크스 크린(표지) 제본: 스테이플, 표지는 접착제 고정, 단면 인쇄, 앞/뒤 양쪽에서 보는 형식 (21페이지)	크기(mm): 200x246 인쇄: 옅색 리소그래픽, 여러 색의 잉크를 각각의 페이지에 적용. 제본: 비닐 팩 속에 낱장의 페이지 (17페이지)	크기(mm): 160x260 인쇄: 옅색 리소그래픽 제본: 편지 봉투 형식의 표지에 낱장의 페이지 (38페이지)	크기(mm): 210x255 인쇄: 옅색 리소그래픽 제본: 스테이플, 11장의 300x253 크기의 종이를 좌철 후 접음 (22 페이지)	크기(mm): 215x320 인쇄: 옅색 리소그래픽 제본: 430x320크기의 표지를 접어 1장의 215x320크기의 페이지 삽입 (6 페이지, 표지포함)
내용	1960년대와 40년대의 건축 소개. 워렌 초크, 론 헤론이 40년대 파트 작업.	'Beyond Architecture'의 주제. 리빙포드, 쿠쉬클 등의 작업 소개.	'The Greater Number'라는 주제의 밀라노 티리날레 참여 작업을 잡지로 구성.	환경, 생태학의 주제로 구성. 내용물 중 씨앗 봉투 포함.	특정 주제 없이, 당시 아키그램 그룹 구성원들의 작업들을 소개.

이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이후 10년 동안 그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아키그램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¹⁸⁾ 이와 같은 작업 환경과 구성원의 변화는 아키그램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아키그램 그룹의 작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3.2. 아키그램의 내용, 형식적 특징¹⁹⁾

아키그램의 내용의 구성과 형식은 정해진 틀이 없이 각 호마다 달리 출판되었다. 각 호의 주제와 구성원의 활동, 예산, 그리고 출력소의 상황에 따라 인쇄, 제본 형식, 그리고 디자인이 결정되었다. 아키그램 1호(1961)와 2호(1962)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지 않고 자신들의 작업과 다른 학생의 작업을 소개하는 소식지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피터 쿡, 데이비드 그린, 마이클 웹이 작업하였던 아키그램 1호는 잡지보다는 유인물에 가까운 매우 단순한 형식의 잡지였다.²⁰⁾ 하지만 아키그램 2호는 잡지

판매의 수익금, 공모전 상금, 그리고 추가 구성원의 합류로 보다 전문적인 잡지 형식을 갖추게 된다.

아키그램 3호(1963)는 노란 색의 종이에 녹색의 잉크로 출력하여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색채로 강조된 잡지를 출판할 수 있었다. 아키그램 3호는 쓰고 버리는 건축(Expendable Architecture)이라는 주제로 구성된 리빙 시티 전시의 내용을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그 결과, 이전의 아키그램 1, 2호나 학생 리틀 매거진과는 달리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잡지가 구성될 수 있었으며, 이는 아키그램만의 독자성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키그램 9호까지 각 잡지는 특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아키그램 9호(1974)를 10호로 하지 않은 이유도 9호에서는 아키그램 그룹 구성원들의 당시 작업을 소개할 뿐 특정 주제로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키그램 6호(1965)에서 피터 쿡이 자신의 제자인 학생 작

18) 그린, 웹은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헤론, 초크는 런던에서 건축사무소 개설하였고, 크롭튼, 쿡, 헤론, 초크는 AA에서 출강하였다.

19) 표 1 참조

20) 아키그램 1호는 2장의 크기가 다른 종이를 좌측 상단에 스테이플로 제본하였다. 첫 번째 장은 복사기를 사용하였고, 상단의 붉은 점은 감자를 깎아 만든 도장을 찍어 표현하였다. 두 번째 장은 자신들의 작업과 데이비드 그린의 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쇄하여 출력하였다.

품을 게재하기까지 아키그램은 자신들의 작업만을 게재 하면서 3인칭적인 잡지의 형태보다는 자신의 건축 철학을 전달하는 1인칭적 매체로 변화하였다.

아키그램 4호(1964)는 미래의 건축 환경에 관한 워렌 초크의 글을 SF만화 형식으로 구성한 것으로, 해외로 전달된 이들의 첫 번째 잡지였다. 실크 스크린으로 표지를 제작하였고, 본문은 버전에 따라 칼라, 흑백으로 작업되었다.²¹⁾ 아키그램 4호에 소개된 프로젝트는 City Interchange Project(1963), Plug-In City Study(1964), House Project(1964), Underwater City Project(1964), Entertainments Tower Project (1963) 등으로 건축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던 이전 호와는 달리 도시 규모의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아키그램 5호(1965)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아키그램 구성원들은 1964년 이후 지역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건축 작업에 각자의 개성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잡지의 구성 방식에도 반영되었다. 아키그램 6호(1965)는 두 개의 잡지가 뒷면이 없이 앞뒤로 구성된 형식으로, 각각 1940년대, 1960년대의 건축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1960년대 섹션은 아키그램의 작업을 소개하고 있으며, 1940년대 섹션은 워렌 초크 개인이 기억하는 40년대의 모습을 이미지와 글들로 구성하였다. 워렌은 이를 카메라 필름을 세로 방향으로 배열한 것과 같은 구성으로 편집하였는데, 아키그램 4에서 워렌 초크가 미래의 건축과 도시의 모습을 공상만화의 형식으로 표현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아키그램 7호(1966), 아키그램 8호(1968)의 경우는 번호가 없고 크기가 다른 낱장의 페이지들이 각각 비닐 팩과 봉투형식의 표지에 담겨진 형태로 발간되었다. 이들은 페이지를 읽는 순서가 상관없도록 각 페이지들이 독립된 내용의 포스터, 편지, 텍스트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아키그램 9(1970)는 환경 및 생태학을 주제로 구성되었고, 마지막 아키그램인 9호(1974)는 각 구성원들이 진행한 프로젝트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3.3. 네트워크로서의 아키그램

리틀 매거진이 가지는 자율성은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을 이끄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나타나는 무정부주의적 속성은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정화 하는 점에는 저해가 되는 요소였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리틀 매거진은 일시적으로 나타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소수의 살아남은 이들은 리틀 매거진의 생태계에서 벗어나 제도화될 수밖에 없다.²²⁾ 데니스 스콧 브라운은

대부분의 리틀 매거진은 하나의 생각만을 지향하여 일방적적이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²³⁾ 하지만 아키그램이 다른 리틀 매거진과 차별성을 가지고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점은 아키그램이 매체(잡지)로서 내용의 생산자(아키그램)와 소비자(독자)를 연결하는 역할 뿐 아니라, 아키그램 자신들의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을 위한 매체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잡지로서 아키그램은 6명의 구성원들이 협업, 혹은 개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공통의 주제에 따라 이들의 작업들이 융화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여 이들이 ‘하나의 생각’만을 지향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키그램에 소개된 이들의 작업은 건축 설계 작업을 소개하는 도면과 모형사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건축 철학을 표현하고 교류하기 위한 에세이, 구성원 간의 서신, 그리고 콜라주 이미지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아키그램 그룹의 작업은 아키그램이라는 매체 안에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하나의 건축 프로젝트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결과물로 독자와 구성원들 사이에서 교류한 점이 큰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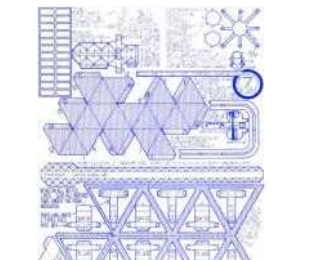
<그림 7> 아키그램 7호의 한 페이지



<그림 8> 아키그램 7호의 한 페이지



<그림 9> 아키그램 7호의 한 페이지



<그림 10> 아키그램 7호의 한 페이지

이의 예로 그림 7 - 10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림 9는 아키그램 7호에 실린 워렌 초크가 데이비드 그린에 보낸 서신으로, 과거와 미래의 건축에 대한 워렌의 짧은 에세이를 편지의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림 7, 8은

21) 아키그램은 종이, 색채, 그래픽이 다른 여러 가지 버전으로 출판되었다. 이는 디자인적 의도라기보다는 출력소가 가지고 있던 종이, 잉크의 제고, 가격 등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출력하였기 때문이다.

22) Patteeuw, Véronique, Architecture, Writing And Criticism In The 1960S And 1970S: The little magazine as agent provocateur, Architectural Theory Review Volume 15 Issue 3, 2010, p.285

23) Scott Brown, Denise, Little magazines in architecture and urbanism,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4, no.4, 1968, p.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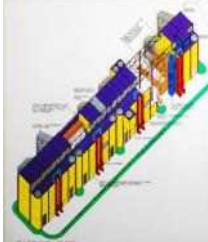
같은 아키그램 7호에 실린 포스터의 앞, 뒷면으로 그림 9의 에세이를 알러스트레이션 형식으로 표현한 작업이다. 또한, 아키그램은 독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아키그램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모형작업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0은 아키그램 7호 표지 뒷면으로 자르고 접어서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전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이 여러 모형들을 서로 조합하면서 응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인데, 이는 독립된 유닛들을 조합하여 구조물을 형성하도록 한 피터 쿡의 플러그인 시티의 개념을 독자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아키그램 작업의 리틀 매거진적 특징

4.1. 매체적 성격의 건축

아키그램 그룹은 기존의 잡지라는 매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한 건축가 그룹이었다. 당시 건축 잡지는 완성된 건축의 사진 이미지, 도면들을 소개하여 건축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아키그램은 이와 같은 잡지의 기능을 넘어 이를 창작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아키그램은 그들이 상상하고, 제안하는 미래의 혹은 현재의 건축을 이론적으로 제안하기

<표 2> 열린 결말로서의 건축

이미지		
제목	Plug-in City (1964)	Plug 'N' Clip House (1965)
참여자	Warren Chalk, Peter Cook, Dennis Crompton	Peter Cook
제목	Gasket House (1965)	Cushicle & Suitaloon (1966-7)
참여자	Warren Chalk, Ron Herron	Michael Webb

보다는 건축적 표현인 이미지와 도면, 그리고 모델 작업을 통하여 표현하였는데, 이는 아키그램이라는 매체와 이의 독특한 편집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강렬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 즉, 이들에게 잡지는 독자와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mass media)이면서, 자신들의 건축 작업 표현 매체(representing media)이기도 하였다.

또한 아키그램의 건축 프로젝트는 그 자체가 매체적인 성격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Blow-out village, Walking City, Computer City, Cushicle & Suitaloon 등과 같은 아키그램의 많은 건축 프로젝트는 이동이 가능한 구조물이거나, 컴퓨터의 회로와 같이 주거단위가 조직화된 구조물이고, 단말기를 통하여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나의 공간이 다른 공간, 혹은 장소와 연결되고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아키그램 건축의 매체적 성격은 이들의 작업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다. 아키그램은 이와 같은 새로운 소통을 통하여 사람들은 이제까지 사회를 지속시킨 계층구조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4.2. 열린 결말로서의 건축

아키그램 4호의 편집자의 글에서 피터 쿡은 “디자인계에서는 그 개념이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를 지녔을 때 교차 수정(cross fertilization)이 가능하다.”²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교차 수정의 개념은 아키그램의 기본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키그램의 작업 자체가 건축과 매체, 그리고 각 구성원들 간의 아이디어와 이미지, 텍스트 작업의 교차 수정인 것이다. 잡지로서 아키그램은 독자와의 소통이기도 하지만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공간이기도 하였다. 1964년 이후 아키그램의 구성원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었을 때도 아키그램을 통하여 이전과 같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다. 표 2의 4개의 프로젝트는 1964년에서 1967년 사이의 작업들로, 각기 다른 구성원들이 작업한 주거 프로젝트이다. 이들 작업은 각각 완결된 프로젝트이면서, 다른 구성원이 이의 아이디어, 작업을 변형, 발전시켜 또 다른 완결된 결과물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결말’의 특성을 가진 프로젝트이다. 이들 Plug-in City, Plug ‘N’ Clip House, Gasket House, Cushicle & Suitaloon 프로젝트는 각각 도시, 지역, 주택, 개인으로 규모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일관된 아이디어, 주제가 어느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고 교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소설이 연재되는 잡지와 흡사한 방식으로 일반 건축 작업과는 차이를 보인다.

4.3. 새로운 현재를 위한 건축

근대 이후 미디어의 발달로 건축적 생산의 영역은 실제 건축물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비평, 잡지, 전시 등과 같은 분야를 보다 폭넓게 포함하게 되었다. 비트리즈 콜로미나는 이와 같은 점을 그리스 신화에서 다이달로스가 만든 미궁의 예를 통하여 말하고 있다.²⁵⁾ 아키그램이라

24) Archigram n°4, p.18

25) 그녀는 현대적 의미에서 진정한 미궁의 건축가는 미궁을 만든 다이달로스가 아닌 테세우스에게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실타래를 준 아리아드네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실타래라는 개념적인

는 매체를 창작의 도구로 건축 작업을 하였던 아키그램의 건축은 위와 같은 측면에서 다이달로스의 건축보다는 아리아드네의 건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아키그램의 건축이 실제로 지어진 것은 없으며, 시공을 할 목적으로 기획된 것은 없다. 하지만 아키그램이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건축은 일반 건축 잡지에서 게재되는 건축과는 다른 현재성을 지닌 건축이었다. 당시 아키그램의 작업을 분석한 테니스 스콧 브라운이나 레이너 벤험은 이들의 작업이 가지는 의의는 오히려 이들의 작업이 현재의 모습을 보다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들 작업에서 나타나는 미래의 모습은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보다 이를 통해 현재의 우리를 새롭게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키그램 그룹의 건축은 미래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현재를 항상 견지하고자 했던 ‘노출된 신경’²⁶⁾과 같은 건축으로 새로운 현실을 제시하기 위한 실제적인 고민이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이러한 아키그램의 새로운 현재를 위한 건축의 예로 Instant City(1969), Idea Circus(1970)를 들 수 있다. 이는 아키그램 구성원들이 대학교들과 전시장에서 겪었던 전시, 세미나, 강의와 같은 실제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그들이 Plug-in City(1964)에서 시도하였던 주제를 접목하여 ‘여행 보따리’와 같은 개념으로 발전시킨 프로젝트였다. 영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전시, 세미나, 강연을 하였던 아키그램 구성원은 이와 유사한 교육, 문화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작은 동네에서도 기존의 시설과 접속하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건축적 제안을 하였다. 이는 매체의 발달로 대도시의 문화 소비에 대한 수요가 적절한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작은 동네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당시 현재의 문제에 대하여 ‘일시적인 건축’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 새로운 해결안이었다.

도구를 사용하여 건축을 재현하고, 그 의미를 이해한 이가 바로 아리아드네였기 때문이다. 다이달로스는 비록 자신이 미궁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이용하여 미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건물을 이해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다. Colomina, Beatriz. "Introduction: On Architecture, Production and Reproduction." Architecture Production, Ed. Joan Ockman,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8, p.7

26) 공간사, 아키그램과 함께 춤을, 공간사, 2005, p.114
 27) 피터 쿡은 다음과 같이 아키그램의 작업의 성격을 기술하였다. “...그것들은 이제까지의 전형적인 해결책들을 갱신하여 그것들을 대체해야 한다는 욕구로부터 해방된다. 어떤 면에서 플러그인시티는 여전히 대체 도시였으며, 캡슐주택은 여전히 대체 주택이었다. ... ‘건물유형의 틈은 결국 깨졌다. 이것은 그 후속 작업들을 비교만을 통해 설명하기 힘들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어진 것으로서의 건물’과의 거리가 가속적으로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건축적 문제들로 인한 속박에서 해방된 새로운 현실을 제시하는 것 같다. ... 그 결과야말로 특정 상황에 대해 진정으로 적합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Cook, Peter, Archigram.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9, p.57

5. 결론

본 연구는 리틀 매거진의 형식으로 발간되었던 아키그램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키그램 그룹의 건축 작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2차 대전 전후에 나타난 건축 관련 리틀 매거진의 특성과 배경을 분석하였으며, 3장에서는 아키그램과 당시의 건축 리틀 매거진과 비교하여 아키그램이 가진 차별성을 아키그램 그룹 구성과 작업 환경, 잡지의 내용과 형식적 특징, 그리고 독자, 아키그램 구성원 간의 소통의 역할을 하였던 기능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와 같이 아키그램이라는 잡지를 배경으로 활동하였던 이들의 건축 작업이 지닌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이 같은 특징들로는 첫째, 아키그램은 의사소통의 수단인 동시에 창작의 도구로 이들이 제시한 건축은 그 자체로 외부의 공간과 장소와 소통하려는 매체적인 특징이 강하였다. 둘째, 아키그램 그룹의 건축 작업과 아이디어는 아키그램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구성원들 사이에서 교류되고 발전되어 하나의 형태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각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으로 발전하였다. 셋째, 아키그램 그룹의 건축 작업은 당시 건축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견지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긴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현실을 제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들은 리틀 매거진 형식의 아키그램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였으며, 이 같은 잡지를 만드는 작업은 적극적인 건축적 실천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TV, 잡지, 인터넷 혹은 스마트 폰을 이용한 웹 사이트, 블로그, SNS 등 아키그램 그룹이 활동했던 1960-70년대 보다 훨씬 다양한 매체들 속에서 살아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50여 년 전의 젊은 건축가들과 리틀 매거진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의 건축가가 새로운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며, 건축사 속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권제중, 아키그램 건축에서 나타나는 유기적 특징과 비유기적 특징의 통합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9권 1호, 2010
2. 공간사, 아키그램과 함께 춤을, 공간사, 2005
3. Banham, Reyner, Zoom wave hits architecture, New Society Volume 7 Issue 179, p.21, 1966
4. Colomina, Beatriz, Buckley, Craig, Clip, Stamp, Fold: The Radical Architecture of Little Magazines 196X - 197X, ACTAR Publishers, 2010
5. Colomina, Beatriz. "Introduction: On Architecture, Production and Reproduction." Architecture Production, Ed. Joan Ockman,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8
6. Cook, Peter, Archigram.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9

7. Mark S. Morrisson, Public Face Of Modernism: Little Magazines, Audiences, And Reception, 1905-1920,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000
8. Ohmann, Richard Malin. Selling culture: Magazines, markets, and class at the turn of the century. Verso, 1996
9. Patteeuw, Véronique, Architecture, Writing And Criticism In The 1960S And 1970S: The little magazine as agent provocateur, Architectural Theory Review Volume 15, Issue 3, 2010
10. Scott Brown, Denise, Little magazines in architecture and urbanism,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4, no. 4, pp.223-233, 1968
11. Steiner, Hadas A. Beyond Archigram: The Structure of Circulation. Routledge, 2013
12. Whiteley, Nigel. Reyner Banham: historian of the immediate future. MIT Press, 2002
13. <http://archigram.westminster.ac.uk>

[논문접수 : 2014. 06. 20]

[1차 심사 : 2014. 07. 21]

[2차 심사 : 2014. 07. 28]

[게재확정 : 2014. 08. 08]